

동아제약, 3월12일 이사회 개최

동아제약은 강문석 전 수석무역 대표가 제출한 주주제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3월12일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3월9일 발표했다.

3월16일 열릴 예정이던 동아제약 주주총회는 3월29일로 연기됐다.

이사회에서는 강문석 전 대표 측이 제안한 이사 9명 선임안과 감사 1명 선임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.

원래 강문석 전 대표 측의 주주제안에는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호 회장의 이사 선임안도 포함돼 있었으나, 강신호 회장이 2월22일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직을 더이상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주주제안에서 제외됐다.

<화학저널 2007/03/09>